

# 몽골제국

## 13~14세기 세계사의 전환을 일으켰던 국가



### 1 개요

몽골 부족의 지도자였던 칭기스칸이 주변 여러 부족들을 정복하고 복속시킨 결과 1206년에 탄생한 유목제국이다. 1206년에 수립되었을 때 국가의 명칭은 몽골어로 예케 몽골 울루스, 즉 대몽골국이었다. 칭기스칸은 대몽골국을 수립하고 국내의 체제를 정비한 이후, 본격적인 대외원정을 시작했다. 그 주요 목표는 자신의 조상을 잔인하게 살해했던 금나라였다. 결국 1215년에 몽골 군대는 금나라의 수도를 점령하였다. 이후 칭기스칸은 자신이 파견한 사신과 상인을 죽인 것에 대한 보복으로 1219년부터 중앙아시아를 침공하면서 새로운 역사의 서막을 열었다. 중앙아시아를 점령하게 되면서 서쪽을 향해 시선이 열리게 된 것이다. 칭기스칸이 사망한 이후 그 후손들은 지속적으로 영토를 확장했고, 쿠빌라이의 군대가 1276년에 남송의 수도를 점령하면서 제국의 확장은 마무리되었다.

### 2 13~14세기 유라시아 세계와 몽골제국

칭기스칸이 여러 유목 부족들을 통일하여 이룩한 몽골제국은 뛰어난 전술을 활용하여 13세기 유라시아를 정복하였다. 칭기스칸은 북중국, 중앙아시아 일대를 정복했고 넓어진 영역을 아들과 동생들에게

분배했다. 칭기스칸이 사망한 이후에도 제국의 정복은 지속되었고, 2대 대칸인 우구데이(재위 1229~1241) 시기에는 북중국의 금 제국을 멸망시켰고 이어서 러시아, 동유럽 일대까지 점령하였다. 4대 대칸인 몽케(재위 1251~1259) 시기에는 서아시아를 점령하였으며 이후 즉위한 쿠빌라이는 남송을 정복하면서 제국의 확장은 마무리되었다. 세계 역사에서 가장 큰 육상제국이 형성된 것이다.

유목민의 통치 방식에 따라 제국 내부에는 여러 ‘울루스’(몽골어 울루스는 ‘토지, 백성, 국가’를 의미하는 용어인데, 여기에서의 울루스는 영주(領主)가 관할하는 영역의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차가다이 울루스라고 하면 차가다이와 그 후손들이 관할하는 영역이라는 뜻이 된다. 몽골제국 전체는 ‘칭기스칸과 그 후손들이 관할하는 영역’이었고, 그 내부에 여러 울루스들이 층층적으로 배치되어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예전에는 네 개의 ‘칸국’으로 제국이 분열되었다고 학계에서 인식했고 교과서에서도 그렇게 서술되었는데, 지금은 정치적으로는 여전히 단일한 몽골제국이지만 울루스들의 자립성이 점점 강해지게 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들이 존재했다. 칭기스칸이 분배한 방식에 따라 큰 울루스들이 탄생했는데, 러시아와 동유럽, 중앙아시아 북부 방면은 칭기스칸의 장남인 주치의 후손들이 지배했다. 이 영역을 예전에는 ‘킵차크 칸국’이라는 용어로 칭했는데, 지금은 ‘주치 울루스’로 부르는 쪽으로 변화하고 있다. 주치 울루스는 남부 러시아 초원 지대를 장악하고 러시아 등 정주 지대는 속령(屬領)으로 관할하면서 유목민으로서의 성격을 오랫동안 유지했다. 주치 울루스의 지배와 영향으로 인해 모스크바 공국의 힘이 서서히 강력해졌고, 결국 러시아 제국이 탄생하게 된다. 중앙아시아의 핵심 지대는 칭기스칸의 차남인 차가다이의 후손들이 통제했고, 이를 ‘차가다이 울루스’라고 부른다. 몽골제국 내에서 그 역사가 잘 알려지지 않은 지역인데, 여기에는 유목 지대와 정주 지대가 혼재하고 있어 두 지역 사이의 갈등이 늘 존재했는데 14세기에 이를 통합하고 거대한 국가를 세운 인물이 바로 티무르이다. 또한, 서아시아에는 몽케의 동생인 훌레구가 자신의 영역을 세웠고 이를 훌레구 울루스(예전부터 사용했던 용어로는 ‘일 칸국’)라고 부른다. 서아시아 지역을 장악하여 중국과 서아시아 사이의 교류에서 큰 역할을 담당했고, 현재의 아나톨리아 반도에게까지 영향력을 미치게 되었다. 13세기 말이 되면 훌레구 울루스의 군주들이 이슬람교로 개종하면서 지역의 종교적 정체성에 녹아들어가게 된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원(元)은 대칸(혹은 카안)의 울루스(지도에 보이는 ‘카안 울루스’)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너무 광범한 영역을 대칸 한 사람이 직접 관할하는 것은 불가능했기 때문에 울루스들의 정치적 자립 경향은 강해질 수밖에 없었다. 이에 따라 각 울루스들은 그 지역의 토착 지배 체계와 몽골 고유의 제도를 동시에 활용하는 지배를 시행했고, 그 결과 유라시아 전역에서 새로운 형태의 역사가 만들어졌다.

몽골제국의 확장과 지배에만 집중하다보면, 몽골제국이 일으킨 전쟁에서 보이는 잔인함이 가려질 수도 있다. 사실 몽골의 군대는 바로 항복하지 않는 도시나 지역을 매우 잔인하게 공격했고, 그로 인해 이전에 번영했던 흔적을 찾아볼 수 없게 된 도시들도 생겼으며 토지가 황폐해진 곳도 없이 많았다. 또한, 몽골 군대의 칼날에 희생된 사람들의 수도 부지기수였다. 물론, 일부 기록에서는 사망자의 숫자를 너무 과대하는 경향이 있기는 하지만 그 과대함을 인정한다고 해도 당시 목숨을 잃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사실을 부정하지는 못한다. 결국 13~14세기 유라시아 세계사가 하나의 큰 전환점이 되었던 과정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피와 땀과 눈물이 있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몽골은 무조건 악당이고 야만인이었던가? 살인을 즐기는 짐승이었는가? 그렇지만은 않았다. 군사적 정복과 확장 과정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었지만, 확장된 제국을 통치할 때에는 남아 있는 다양한 민족 출신의 피정복민들을 유연하게 다스렸기 때문이다. 몽골인들은 자신들이 점령한 농경정주 지대에서 오랜 세월을 걸쳐 발전한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제도와 관습 및 통치 방향에 대해서 아는 것이 거의 없었다. 유목민들의 제도나 관습과는 너무나도 커다란 차이가 존재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농경

정주지대를 안정적으로 통치해야만 했던 몽골 지배자들은 방법을 고안해야 했고, 결국 현지 사정에 익숙한 관료들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중국에서는 한인(漢人), 중앙아시아나 서아시아에서는 현지의 무슬림 관료들이 등용되어 제국의 운영 방향을 설정하는 것에 일조했다. 몽골 지배자들은 자신들의 통치에 협력할 수 있는 유능한 인재를 중용했고, 실무 능력과 업적을 중시하였다. 일례로 중국에서는 한 동안 과거제도를 통해서 유교 경전에 통달한 인재를 뽑는 일이 시행되지 않았는데, 중국을 통치하면서 초기의 제도를 정비했던 쿠빌라이가 유교 경전에 대한 지식보다는 실무 감각과 능력을 더 중시했기 때문이다.

최근에 몽골제국의 역사적 의미에 대한 재조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야만과 폭력의 이미지로만 묘사되었던 몽골제국의 또 다른 측면을 발견하려는 노력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한 재조명의 결과 나타난 제국의 모습은 한 마디로 ‘세계제국’이었다. 단순히 당시 유라시아 세계의 대부분을 차지한 것 때문이 아니라 그 세계를 하나로 연결하는 제도들, 그리고 그 영향을 받아서 이루어진 장거리 교역의 활성화, 문화의 활발한 교류, 사람과 물자의 광범위한 이동 등 ‘세계제국’으로서의 모습이 포착되고 있는 것이다. 육로와 해로를 통해서 이탈리아의 베니스에서부터 중국까지 왕래했던 마르코 폴로, 북아프리카에서 유라시아의 각지를 거쳐 중국까지 왔던 모로코 출신의 이븐 바투타는 몽골세계제국이 있었기에 등장할 수 있었던 인물이었다.

문화, 사상, 사람, 물자의 활발하고 광범한 이동 역시 몽골제국의 역사적 의미를 파악하는 데에 있어서 꼭 다루어야 할 사안이다. 몽골은 자신들이 정복한 넓은 지역에 몽골식의 유목 문화만을 강제하지 않았고, 현실적으로 그럴 수도 없었다. 그러다보니 동아시아, 중앙아시아, 서아시아, 러시아, 유럽 등 유라시아 대륙의 다양한 문화 사이의 접촉이 더욱 활성화되었고 이는 서로의 삶에 커다란 변화를 불러일으켰다. 예를 들어 소주(燒酒)가 한반도에서 만들어질 수 있게 된 배경에도 몽골제국이 있다. 증류주를 만드는 법은 서아시아에서 기원한 것이고, 몽골제국 시대의 교통로를 따라 증류주 제조 기술이 동쪽으로 한반도까지 전파된 것이다.

그리고 마르코 폴로가 중국에 머무르면서 보고 들었던 것들을 기록의 형태로 남긴 『동방견문록』(원래의 제목은 『세계의 서술』)은 당시 동아시아에 대한 정확한 지식과 정보를 전혀 보유하고 있지 않았던 유럽인들의 인식을 서서히 변화시켰다. 그리고 쿠빌라이 등 몽골의 지배자들은 인종, 민족과는 상관없이 유능한 인재를 전쟁 중에 포로로 잡아오거나 혹은 초빙하여 등용하면서 사람의 이동 역시 활발해졌다. 이러한 모든 것들은 문화의 혼합, 지식의 확대 등의 현상을 만들어냈다. 그리고 몽골제국은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뒷받침하는 역할을 담당했다. 그래서 한 연구자는 몽골제국 시대에 보이는 여러 가지 교류를 ‘칭기스의 교환’(Chinggis Exchange)이라는 새로운 용어를 도입하여 설명하기도 했다.

### 3 몽골제국과 고려

13세기 유라시아를 휩쓸었던 몽골의 군대는 한반도에도 침략하여 고려의 역사에 큰 상처를 남겼다. 1231년부터 시작된 몽골의 고려 침략은 1259년까지 간헐적이지만 계속 이루어졌고, 고려 조정과 무신 집권세력은 1232년에 강화도로 수도를 옮기면서 직접적인 피해는 입지 않았다. 그러나 섬이 아닌 육지에 남아 있는 수많은 백성들은 몽골의 침략에 온몸으로 맞섰다. 또한, 팔만대장경을 만들어 불교의 힘으

로 몽골의 침략으로 생긴 피해를 극복하고자 했다. 그래서 고려의 끈질긴 저항으로 인해 몽골은 30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에도 고려를 멸망시키지 못했다. 몽골은 항복하지 않고 저항하는 국가나 도시에 대해서는 잔인할 정도로 복수하고 살육을 감행하면서 지역을 황폐화시켰는데, 만약 30년 가까운 시간을 항복하지 않고 버티다가 몽골에 의해 정복되었다면 고려는 물론이고, 한반도 전역이 엄청난 피해를 입었을 것이다. 그러나 1259년에 몽골과 강화(講和)를 맺기 위해 몽골의 대칸을 만나러 갔던 고려의 태자가 대칸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인해 대칸 대신에 대칸의 동생인 쿠빌라이를 만나면서 상황은 완전히 바뀌었다.

1259년 당시 쿠빌라이는 남송 정복을 위한 전쟁을 치르고 있었는데, 대칸이 사망하면서 자신이 대칸이 되겠다는 야망을 품고 군사적 성과를 올리고자 했다. 그러나 남송의 저항이 완강하여 남송 정복은 쉽지 않았는데, 생각하지도 못했던 고려의 태자가 자신을 만나러 온 것이었다. 쿠빌라이는 고려가 자신에게 복속한 것으로 이해했고, 고려의 태자가 고려의 왕위를 무사히 계승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했다. 30년 가까운 시간 동안 벌어진 전쟁은 고려 태자와 쿠빌라이의 만남으로 인해 상당한 정도로 기억에서 희미해지게 된 것이다. 이것이 고려가 세계를 휩쓸었던 몽골제국의 파도 아래에서도 국가를 유지하면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의 단초이다.

쿠빌라이는 고려를 멸망시켜 몽골제국의 영토로 흡수하지 않았고, ‘복속하는 국가’로 여겼다. 고려는 중국에서 건국되었던 여러 국가들과 ‘조공-책봉관계’를 통한 외교 방식을 유지했기 때문에 몽골과도 그러한 관계를 계속 이어나갈 수 있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그러나 몽골은 형식적으로 ‘조공-책봉관계’를 유지하면서도 그 이상의 여러 사항들을 요구했다. 학계에서는 이른바 ‘육사’(六事)라는 용어로 몽골이 요구했던 내용들을 정리하고 있는데, 『고려사』에서는 “내속(內屬)한 나라들은 인질을 보내고 군대를 보내어 정벌을 도우며, 군량을 조달하고 역참(驛站)을 설치하며, 호구 수를 조사하여 바치며 다루가치를 설치한다는 것”이 복속국의 의무라고 제시되어 있다. 관련사료 이러한 의무는 기존의 ‘조공-책봉관계’ 외교에서는 시행되는 것이 아니었고, 호구 수까지 조사하여 보고한다는 것은 일종의 내정간섭이라고도 볼 수 있는 여지가 충분했다. 이를 놓고 고려와 몽골제국 사이에서는 외교적 긴장이 조성되기도 했는데, 의외의 방향으로 사건이 전개되면서 그 긴장은 점점 해소되었다.

의외의 방향이라는 것은 바로 고려의 왕실과 몽골제국의 황실(쿠빌라이 가문)이 혼인을 맺게 된 사건이다. 충렬왕이 쿠빌라이의 딸과 혼인하면서 부마(駙馬, 황제의 사위)가 되었기 때문에 고려는 단순한 복속국이 아니라 몽골제국의 ‘가족’이 되었던 것이다. 그러니 ‘육사’와 같은 복속국의 의무를 가족에게 계속 강조하면서 압박할 이유가 없어졌다. 그렇다고 해서 고려가 완전히 몽골로부터 벗어났던 것은 아니다. 오히려 황실과 가족이 되면서 정치적으로 얹히는 일이 더욱 많아졌다. 충렬왕과 쿠빌라이의 딸 사이에서 충선왕이 태어났는데, 1298년에 몽골 측은 충렬왕을 폐위시키고 충선왕을 고려국왕으로 책봉했다. 그리고 1년도 지나지 않아 이번에는 충선왕을 폐위시키고 충렬왕을 복위시켰다. 이렇게 고려의 왕위가 몽골의 뜻대로 바뀌었던 현상은 고려 왕실이 몽골의 정치적 의도에 따라 바로 영향을 받았음을 의미한다. 황실과 가족이 되면서 고려 왕실의 권위는 높아졌지만, 그에 따른 반대급부도 존재했던 것이다.

또 한 가지 독특한 사실은 ‘정동행성’(征東行省)이라는 통치 기구이다. 정동행성은 원래 1281년의 2차 일본 원정을 위해 설치된 기구였다. 그러나 일본 원정이 실패로 끝나면서 정동행성도 폐지되었는데, 1283년에 다시 설치되었다. 이후 정동행성은 몽골의 지방통치기구처럼 일부 관료들이 배치되지만, 정동행성을 관할하는 승상은 고려국왕이 맡았고 정동행성은 몽골-원 제국 영역의 다른 행성들과 비교하면

그 조직과 구성이 완전하지 않았다. 그래서 고려국왕이 수장을 맡은 정동행성은 고려의 내정에 깊숙이 간섭하는 역할을 담당하지 않았고, 따라서 고려는 고려국왕의 통치 영역으로서 고유한 정치적 독자성을 유지했다. 물론, 몽골 측이 정동행성을 매개로 고려의 내정에 깊숙이 개입하려 했던 사례가 있었지만 이는 고려의 강력한 반발로 인해 성공을 거두지 못했다.

원 제국 시기에 고려국왕은 제국 황실의 부마이면서 정동행성의 승상이기도 했기 때문에 세 가지 지위(고려국왕, 부마, 정동행성승상)를 겸하고 있었다. 이는 고려-몽골 관계의 전개에서 확인되는 매우 특이한 현상이고, 특히 정동행성의 승상이라는 것은 비록 정동행성의 체제가 불완전했음에도 원 제국의 지방 관료라는 위상을 지니고 있는 것이었기 때문에 고려국왕은 한 국가의 국왕이자, 황실과 혼인으로 맺어진 가족이자, 제국의 관료로서의 위상을 동시에 지니게 된 셈이었다. 이때 만들어진 외교의 형식과 내용은 이후 고려-명 관계와 조선-명 관계에도 일정 부분 영향을 끼치게 된다.

#### 4 몽골제국 쇠퇴 이후의 변화

13세기 세계사의 변영과 변화를 만들어냈던 몽골제국은 14세기에 접어들면서 서서히 쇠퇴하기 시작했다. 쇠퇴의 요인들로는 잦은 정치적 갈등, 물가 조절의 실패, 기후의 한랭화와 전염병의 유행 등 여러 가지가 지적되고 있다. 이러한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제국의 쇠락을 초래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특히 흑사병의 유행은 몽골제국이 만들어 낸 교통로를 따라 빠르게 퍼지면서 유라시아, 특히 유럽에서 많은 사망자를 발생시켰다. 이러한 전염병은 유럽은 물론이고, 유라시아 전체로 퍼져나갔고 이것이 자연재해와 겹쳐지면서 농민들의 불만감을 대폭 높여 결국 대규모의 반란을 초래했다. 13세기가 몽골제국의 팽창과 안정적 통치로 인해 변화한 시기였다면, 14세기는 몽골제국의 쇠퇴와 새로운 세력의 등장으로 인해 세계사에 변동이 이루어진 시기였다. 그래서 학계에서는 ‘포스트-몽골’(Post-Mongol), 즉 ‘몽골 이후의 시대’라는 용어를 설정하여 몽골제국 쇠퇴 이후의 변화를 설명하려고 시도하는 중이다. 몽골 이후의 시대 변화로 인해 등장한 국가들로는 중국의 명·청제국, 중앙아시아의 티무르 제국, 서아시아의 오스만 제국, 인도의 무굴 제국 등 몽골제국 시대 이후 각 지역에서 거대한 영토를 다스렸던 나라들이 언급되고 있고, 이 국가들의 건국과 발전 과정에서 몽골의 유산(遺産)이 확인된다는 점에 학계가 주목하고 있다. 그리고 더 나아가 15세기의 대항해시대가 나타날 수 있었던 시대적 배경에 몽골이 있었다는 점도 밝혀지고 있다.

그렇다면, 한반도에도 몽골제국 쇠퇴의 여파가 전달되었을까? 고려와 몽골제국의 특별한 관계로 인해 고려 역시 14세기 세계사 변화의 흐름과 연결되지 않을 수 없었다. 1351년부터 원에서는 홍건적의 반란이 일어났고, 제국 조정이 이를 제대로 진압하지 못하면서 개별적으로 세력을 갖춘 군벌들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당시 고려국왕이었던 공민왕은 이러한 국제정세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었고, 1356년에 원 제국의 황후인 기황후의 오빠 기철을 포함하여 원을 배경으로 권세를 누리던 세력들을 숙청하고 쌍성총관부 지역을 군사적으로 수복하는 등 이른바 ‘반원개혁’을 단행했다. 하지만 원과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진 것은 아니었고, 정동행성도 그 영향력이 더욱 약해지기는 했지만 폐지되지는 않았다. 그리고 홍건적 세력이 국경을 넘어 고려까지 침입하면서 공민왕이 피난을 가는 상황까지 발생했으니 몽골제국 쇠퇴의 여파는 고려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다고 할 수 있다. 게다가 1368년에 몽골 정권을 북방으로 몰아낸 명 제국의 등장으로 인해 동아시아 정세는 더욱 복잡해졌고, 친명정책을 추진하던 공민왕이 암살



된 이후 고려는 명과 북쪽으로 물러난 몽골 사이에서 신중한 외교정책을 추진해야 했다. 그러나 1388년에 북쪽의 몽골 세력이 명의 군대에 의해 큰 타격을 입고 분열되면서 힘을 잃었고, 때마침 고려에서는 명의 강압적인 국경 설정에 저항하며 최영을 중심으로 요동 정벌을 시도했다가 이성계가 위화도에서 회군하면서 이후의 외교는 명 제국으로 기울어졌다. 국내 정국의 변동이 수반되면서 결국 고려는 멸망하고 조선이 건국되었다. 14세기는 동아시아에서 정치적 변동의 바람이 크게 휘몰아쳤던 시기였다.